



순창소방서, 119리본 구급대원에 소방서장 표창장

순창소방서는 지난 29일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45명 중 소방장 이나현, 소방장 배진영, 소방교 채한석 3명을 선별하여 소방서장 표창, 1일 포상휴가, 119리본 구급대 배지, 부상 등을 수여했다.

119리본(Rebam)구급대란 Re(다시) + bam(탄생하다)의 의미로 심정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시켜 새 생명을 부여한 구급대이다.

대상은 순창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구급대원이며, 선발 기준은 반기별 자발순환회복률 관련 전문처치 점수표 7개 항목에 의한 다득점자 중 3명을 선발한다.

119리본(Rebam)구급대로 선별돼 표장을 받은 소방장 이나현 대원은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팀워크 훈련에 집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공감·다정소통관 위촉

순창소방서는 지난 29일 지원 간 소통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공감소통관으로 소방경 양종택, 다정소통관으로 소방장 이나현을 각각 위촉했다.

소통관 제도는 ‘나’ 보다 ‘우리’를 우선하고 상호 경험과 이해로 세대를 통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소통관은 지원 투표에 의해 선정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촉된 양종택 소방경은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밝은 조직문화 조성을 힘써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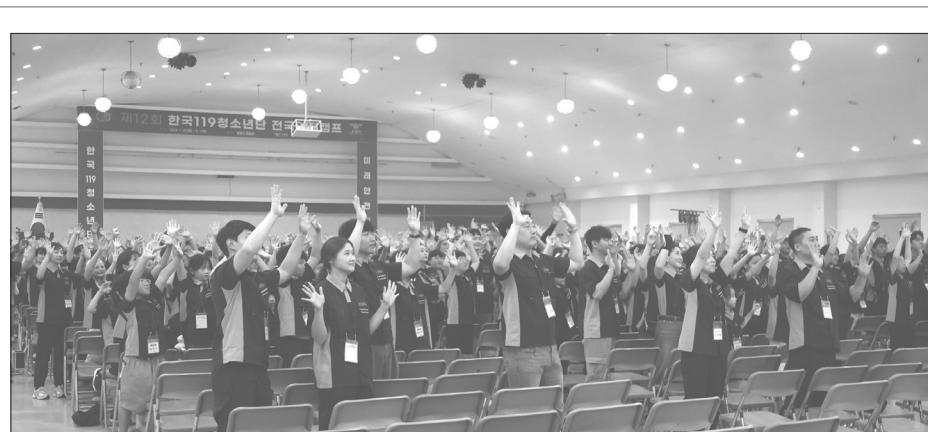
김제 죽산면 주민자치위,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공병일)가 30일 죽산면 복지생활관에서 협의체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2024년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준비 등을 논의했다.

죽산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천하고 있는 뜻깊은 행사로 8월부터 모종을 식재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위탁운영·관리하는 구)남초등학교 부지에 모여 제조 작업 및 비닐 제거 작업 등을 통해 2024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안전캠프 개최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장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

남원소방서는 지난 29일, 소방청과 한국 119 청소년단이 주최하는 제12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개회식을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안전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체험으로 배우면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단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과·지도교사 등 473명이 참가, 8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에는 구조견 장애물 통과 관람, 드론 장애물 통과 체험 및 친선의 밤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2, 3일차는 4개팀이 순환식 체험으로 △선박 탈출△급류 사고와 익수 사고시의 생존 수영 등 물놀이

안전체험 △연기탈출 △지진, 태풍 체험 등 재난 종합체험과 △항공기 안전 △완강기 △암벽등반 등 위기탈출법을 체험 △항공우주천문대 및 미술관, 콩미술관 등 과학 예술탐방 △역문화탐방으로 화인당, 광한루원, 남원다음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등을 방문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500여 명의 119 청소년단 단원 및 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미래의 안전지킴이인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성실, 완주군에 2600만원 상당 의류 후원

국제로터리 3670지구 봉동로터리 클럽(회장 이길용)의 연계로 (주)성실(대표 정태우)이 2,600만원 상당의 의류, 속옷, 양말 등을 완주군에 후원해 지역에 전달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성실은 1997년도에 유·소아 및 성인 내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출발해 kf 마스크 및 성인복, 골프웨어 등을 전문생산하는 업체다. 장애인단체 제품 기증, 해외의료봉사 의류 기증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국제로터리 3670지구 봉동로터리 클럽 과연주 이사가 후원해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친분이 있는 (주)성실 정태우 대표에게 후원을 건의, 성사됐다. (주)성실은 후원물품을 물류창고에서 배송해지역까지 직접 운송해줬다.

정태우 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임실 사선대로타리클럽, 저소득 가정에 물품 기탁

임실군 국제로터리 3670지구 사선대로타리클럽(전길용 회장)은 지난 29일 관촌면사무소를 찾아 북부권역(관촌면, 신덕면, 신평면, 운암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백미 10kg 48포, 잡초림 500g 170팩(1,750,000원 상당)을 기탁했다.

사선대로타리클럽은 백미, 생필품, 연탄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온 단체이다.

특히, 지난 12월 생필품 세트 기탁에 이어 이번 기탁도 임실군 북부권역인 관촌면, 신덕면, 신평면, 운암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길용 회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공덕면 주민자치위, 도시숲 환경정비 추진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30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완우)가 여름 맞이 깨끗하고 공덕면 조성을 위해 황산리 일원에서 도시숲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비 작업은 주민자치위원 25여 명이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부터 위원들이 합심해 도시숲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초 작업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시숲 환경 정비 활동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민 뿐만 아니라 공덕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공덕면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